

격 려 사

생명의 기운을 싱그러움으로 전하는 좋은 절기에 국군불교총신도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기념일을 맞아 군불교 지도자와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신행활동의 서원을 다지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최근 군불교는 어느 시기보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총신도회의 신행활동 또한 저마다의 공덕을 한껏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깊은 신심과 신행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소임에 매진하시는 총신도회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는 국군장병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인성을 강조하는 건강한 사회의 청년으로 안내하고,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자긍심이 넘치는 불자로 성장하게 하는 매우 귀중한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군종교구 본사주지 정우스님의 원력과 이에 따르는 왕성한 활동은 종단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군불교의 발전은 큰 걸음들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불총의 발전을 이루는 큰 동력이면서도, 다시금 군불총의 한

결같은 정진으로 군종교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발전과 지대한 공적들이 있기에 우리 군불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국방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운융창을 위한 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며, 정신을 가다듬는 소중한 신행활동을 보다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를 안위를 위하는 호국불교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행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가 성심으로 따르는 일이며, 불은에 보답하겠다는 불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불자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이자 주어진 일에 조화롭게 대처하는 삶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 깊은 법회를 생동하는 기운속에서 고마운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 군종교구와 군불총의 커다란 원력과 오랜 실천들이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모두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3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